

## 실험적 공간에서 만나는 젊은 작가 7인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3-04-23 13:36



사진설명 = Miyeon LeeBada 1,2,32008drawing on paper22x28cmCourtesy of the Artist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 국제갤러리 '기울어진 각운들' 展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온통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전시장을 육중하고 기울어진 벽이 가로지른다.

이 기울어진 벽 주위로 젊은 작가들이 각자의 스타일대로 작품을 펼쳐보인다.

소격동 국제갤러리가 실험적인 태도로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내는 국내 신진작가들의 그룹전 '기울어진 각운들(The Song of Slant Rhymes)'을 23일 개막했다.

남화연, 문영민, 윤향로, 이미연, 정은영, 차재민, 홍영인 등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젊은 작가 7인이 참여하고 큐레이터이자 비평가로 활동하는 김현진이 기획했다.

젊은 작가들이 꾸미는 전시에 걸맞게 전통적인 화이트 큐브에 기울어진 거대한 벽을 설치해 실험적인 공간을 만들어낸 점이 눈에 띈다. 이 공간에 작가들의 일곱 가지 색깔이 담긴 작품 20여 점을 전시한다.



사진설명 = Siren Eun Young Jung The Song of Phantasmagoria 2013 slide projection with 119 films and 4 projectors dimension variable 00:04:00 (looped)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작가 그룹 '파트타임 스위트'의 이미연(35)은 강이나 바다의 조난 현장이나 구조 현장을 촬영한 보도사진 등을 인터넷에서 찾아 먹지에 대고 베끼면서 일부분을 남기거나 지우는 방식으로 재구성한 드로잉 시리즈를 기울어진 벽에 수십 장씩 매달았다.

정은영(39)은 1950년대 우리 대중문화 장르로 부상했던 여성국극을 기록하고 연구하면서 과거 국극 배우들의 사진 자료를 슬라이드로 보여준다.

전시 기획자 김현진은 "전시장은 조용하지만, 간섭을 일으키는 공간으로 꾸며졌다"며 "화이트 큐브 안에 작은 건축적 변화가 더해지고 그 안에서 작가들이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전시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갤러리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작업을 장려하고자 매년 기획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시는 6월 16일까지. ☎02-735-8449.

mong0716@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부작용 우려 타이레놀시럽 160만병 판매금지
- ☞ "조용필 오빠가 음반 내도 안된다고요?"
- ☞ 신월성 1호기 멈춰 전력 비상... '준비' 경보발령(종합)
- ☞ 박주영 교체출전 셀타비고, 레알 사라고사에 역전승
- ☞ 어나니머스 "외환은행 고객정보 DB 해킹"(종합)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6220039>

---

인쇄하기 취소